

# 한국 기혼여성과 이민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

강문희<sup>1</sup>, 이지혜<sup>2\*</sup>

<sup>1</sup>충남대학교 간호대학, <sup>2</sup>울산과학대학 간호학과

## Influencing Factors on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in Korean and Immigrant Married Women

Moonhee Gang<sup>1</sup>, Jihye Lee<sup>2\*</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t. of Nursing, Ulsa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과 이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D 광역시에 거주하는 21-45세의 기혼자인 한국여성 110명과 이민여성 91명 총 201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7월 1일에서 8월 3일까지였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chi^2$ -test, t-test, ANOVA, ANC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한국여성에서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이민여성에서는 한국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은 한국여성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10.5%이었고, 이민여성에서는 한국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59.0%였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의 개발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in Korean and immigrant married women.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10 Koreans and 91 immigrants in D metropolitan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2$ -test, t-test, ANOVA, ANC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1.0 program.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and perceived need for mental health service in Korean women, and with Korean fluency,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and social support in immigrant women. In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predictors of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were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in Korean married women (10.5%), and Korean fluency, nationality,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and social support in immigrant women (59.0%). These finding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in married women.

**Keywords** : Depression, Factor, Help-seeking behavior, Married women, Mental health

### 1. 서론

우리나라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수는 304,516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2

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다[1]. 이중 여성이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로 언어, 양육과 교육, 빈곤, 문화격차, 부부갈등, 외로움 등으로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2-3], 대상자의35.9%는 지난 1년 동

\*Corresponding Author : Jihye Lee (Ulsan College)

Tel: +82-42-580-8332 email: jhlee5@uc.ac.kr

Received July 18,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Revised (1st August 14, 2017, 2nd August 25, 2017)

Published October 31, 2017

안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7.4%는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여[1]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은 인간의 다양한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흔히 성별에 따라 질환의 유형이나 유병률, 증상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산전과 산후우울증, 월경 전 이형장애, 폐경 관련 우울증 등은 여성에만 국한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산후우울증이 증가하고 남성노인의 자살이 심각해 지면서[4]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성별 공통적인 접근과 더불어 성별 특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

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특히 기혼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주요 정신건강문제는 우울증이다. 국제적으로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남성의 약 2배 이상이며, 국내의 경우는 남성의 약 3배로 높게 보고되었다[4]. 따라서 문화적응의 어려움 속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울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기혼 이민여성의 우울증 예방과 관리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4]. 게다가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본인 뿐 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 전체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6] 이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혼 이민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 취업, 모자보건, 출산률,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문화적응, 정신건강 등 다양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2,3,7,8]. 하지만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대부분 우울이나 산후우울의 유병률 조사나 우울 관련 요인의 탐색에 국한되어 [7] 구체적인 우울예방 행위를 포함하여 정신건강증진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행동을 도움추구 행동이라고 한다[9]. 특히 전문적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이란 심리치료 및 상담, 정신과 의료진의 전문적 도움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말한다. 우울증은 정신질환 중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 하나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의해 90%이상 회복이 가능하다. 우울증에 대한 도움을 적시에 받는 것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인 문제 즉, 우울의 악화 및 자

살 위험성을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초기에 대상자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이용 즉,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효과적인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계 이민여성들은 다른 문화권의 여성인구와 비교할 때 정신건강에 취약하나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0-12].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생태학적 관점이나 건강증진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10,13-14]. 그 결과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의 관련 요인으로 정신질환자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과거 서비스이용 경험, 성별, 경제력 등 인구학적 특성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정신증상 인식,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태도나 인식 등이 제시되었다[10,13-17]. 요약하면, 수정이 불가능한 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하면 정신증상,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지지,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주요 관련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외 연구로 아시아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기혼여성에게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13,14,17]. 또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정신건강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로 측정하고 있었으며 태도가 꼭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지 때문에 태도를 통해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18]. 또한 이민여성은 언어,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 기혼여성과는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취약할 수 있는 기혼 이민여성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이민여성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과 치료의 주요 요소인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기혼 이민여성 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서비스 요구 및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여, 기혼 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이민여성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서술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 광역시에 거주하는 21-45세의 기혼 이민여성과 한국여성을 편의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 정신과적 과거력이 없고, 2)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3)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 한 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양측검정, 유의수준은 .05, 중간 크기의 효과의 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4로 하였을 때, 총 85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C 간호대학 IRB의 승인(IRB no. 201506)을 받아 수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자는 기혼 한국여성을 모집하기 위해서 D 광역시에 위치한 문화센터, 보건소, 마트, 미용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그런 다음 사전에 훈련을 받은 식사과정생 2명이 해당 장소에 부스를 마련하고 연구의 목적,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한 ‘연구 안내문’을 직접 배포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둘째, 본 연구자는 기혼 이민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D 광역시에 위치한 3개 다문화센터 (한국어 강좌반)를 직접 방문하여 각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사전에 수강생 명단에 따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버전으로 연구의 목적,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한 ‘연구 안내문’을 작성하여 다문화센터에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이러한 모집방법은 연구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가능한 대상자가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본 연구주체에 합당한 결과인 일반적인 한국여성과 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도움추구행동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얻기 위해서이다.

모든 자료 수집은 사전에 훈련된 연구보조원 2명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로 서면 동의를 한 대상자에게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및 영어 버전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버전의 설문지는 사전에 간호학과 교수 2인, 각 이중언어가 가능한 베트남인 식사과정생 2명, 중국인 박사과정생 2명, 한국계 미국인 박사과정생 1명이 번역과 역번역 절차와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의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설문응답 중 언제든지 응답에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대상자의 연구 참여 포기 권리를 인정해 주었으며, 설문지 응답에 대해 1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7월 1일에서 8월 3일까지였다.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220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1.3%)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포함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한국여성 110부, 이민여성 91부 총 20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우울

Spitzer, Williams 와 Kroenke 등 [19]이 개발하고 저자에 의해 승인 없이 사용하도록 허가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아니다=0점”에서 “거의 매일 그렇다=3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며, 9점 이상은 진단검사와 중재가 필요한 임상적 우울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이었다.

#### 2.3.2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Hirai와 Clum [20]이 개발한 Beliefs toward Mental Illness Scale (BM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 치료불가능에 대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의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이었다.

#### 2.3.3 사회적 지지

Suurmeijer 등[21]이 개발한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for Transactions (SSQ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묻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2.3.4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정신치료나 정신건강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를 묻는 1문항,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6점”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3.5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Fischer의 Farina[22]이 개발한 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S)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발생 시 전문가나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의도를 묻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2.3.6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기간, 자녀 유무, 월수입, 정신건강서비스(정신병의원 및 정신과 외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이용 경험과 이민여성의 경우 이민기간, 한국어 유창성(10점 만점 VAS scale)을 포함하였다.

##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국여성과 이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의 차이는 t-test,

$\chi^2$ -test, ANCOVA, ANOVA로 분석하였다. 각 집단별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Durbin-Watson 1.95-2.17, 공차 .68-.99, VIF 1.00-1.45, 상관계수 .60미만으로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한국여성은 39.7세, 이민여성은 27.8세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15.60$ ,  $p<.001$ ). 평균 교육기간은 이민여성은  $11.1\pm 2.97$ 년, 한국여성은  $14.9\pm 2.21$ 년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t=10.35$ ,  $p<.001$ ), 자녀유무는 이민여성의 63.7%와 한국여성의 81.8%에서 자녀가 있어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였다( $\chi^2=8.38$ ,  $p=.004$ ). 월수입은 이민여성의 86.8%가 200만원 미만인 반면 한국여성의 52.7%가 3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85.59$ ,  $p<.001$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이민여성의 5.5%로 한국여성의 2.7%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민여성의 평균 이민기간은  $4.5\pm 3.06$ 년이었으며, 한국어 유창성은 10점 만점에 평균  $4.5\pm 2.57$ 점으로 응답하였다 [Table 1].

### 3.2 대상자의 제 변수의 평균비교

일반적 특성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를 공변량 처리하고 제 변수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ANC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울은 이민여성에서 평균  $7.92\pm 5.39$ 점, 한국여성에서 평균  $4.46\pm 3.93$ 점으로 두 군 모두 정상수준이었으나 이민여성에서 한국여성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5.22$ ,  $p=.023$ ). 또한, PHQ-9의 절단점 9점[16]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임상적 우울군은 이민여성에서 42.9%로 한국여성에서 15.5%로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 $\chi^2=18.60$ ,  $p<.001$ ).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은 이민여성에서 평균  $4.27\pm 1.14$ 점으로 한국여성에서 평균  $3.79\pm 0.99$ 점 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F=8.22$ ,  $p=.005$ ). 사회적 지지는 이민여성에서 평균  $3.20\pm 0.80$ 점으로 한국여성에서 평균  $2.91\pm 0.42$

점으로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F=6.27, p=.013$ ).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이민여성에서 평균  $2.69 \pm 1.34$ 점으로 한국여성에서 평균  $2.68 \pm 1.40$ 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이민여성에서 평균  $3.12 \pm 0.55$ 점으로 한국여성에서 평균  $2.58 \pm 0.32$ 점으로 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5.69, p<.001$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1)

Variables	Koreans (n=110)	Immigrants (n=91)	$\chi^2 / t$ (p)	
	n(%)	n(%)		
Age (year), M(SD)	39.7(5.33)	27.8(5.37)	15.60 (<.001)	
Education (year), M(SD)	14.9(2.21)	11.1(2.97)	10.35 (<.001)	
Children	Yes	90(81.8)	8.38 (.006)	
	No	20(18.2)		33(36.3)
Monthly income (10,000won)	200>	25(22.7)	85.59 (<.001)	
	200-300	27(24.5)		9(9.9)
	300≤	58(52.7)		3(3.3)
Experience of mental health service	Yes	3(2.7)	0.99 (.472)	
	No	107(97.3)		86(94.5)
Immigration period(yr), M(SD)	-	4.5(3.06)	-	
Fluency of Korean, M(SD)	-	4.5(2.57)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민여성군에서는 자녀가 있는 군이 없는 군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200-300만원 군이 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군 보다 높았으나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신건강 서비스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 보다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국여성군에서는 자녀가 있는 군이 없는 군 보다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 군이 200만원 이상인 군보다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신건강서비스 경험여부에서는 경험이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Comparison of Means of Study Variables among Two Groups (N=201)

Variables	Koreans (n=110)	Immigrants (n=91)	$\chi^2 / F^*$ (p)
	M(SD)	M(SD)	
Depression	4.46(3.93)	7.92(5.39)	5.22 (.023)
Normal group (PHQ-9<9), n(%)	93(84.5)	52(57.1)	18.60 (<.001)
Depression group (PHQ-9≥9), n(%)	17(15.5)	39(42.9)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3.79(0.99)	4.27(1.14)	8.22 (.005)
Social support	2.91(0.42)	3.20(0.80)	6.27 (.013)
Need for mental health service	2.68(1.40)	2.69(1.34)	1.20 (.273)
Help-seeking behavior	2.58(0.32)	3.12(0.55)	15.69 (<.001)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

F\*=ANCOVA test controlled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3.4 대상자의 제 변수 간의 관계**

대상자의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민여성군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한국어 유창성( $r=-.29, p=.007$ )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r=.57, p<.001$ ), 사회적 지지( $r=.53, p<.001$ )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국여성군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우울( $r=.20, p=.031$ ),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r=.18, p=.048$ ),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 $r=.23, p=.015$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Two Groups (N=201)

Variables		Help-seeking behavior			
		Koreans (n=110)		Immigrants (n=91)	
		M(SD)	F/t (p)	M(SD)	F/t (p)
Children	Yes	2.57(0.29)	0.43 (.665)	3.16(0.55)	-0.88 (.380)
	No	2.61(0.45)		3.05(0.56)	
Monthly income (10,000won)	200>	2.56(0.41)	0.82 (.440)	3.16(0.53)	2.56 (.083)
	200-300	2.65(0.30)		3.00(0.66)	
	300≤	2.55(0.30)		2.46(0.41)	
Experience of mental health service	Yes	2.76(0.25)	0.98 (.325)	2.76(0.93)	-1.50 (.136)
	No	2.57(0.33)		3.14(0.52)	

**Table 4.**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among Two Groups (N=201)

Variables	Help-seeking behavior	
	Koreans (n=110)	Immigrants (n=91)
	r(p)	r(p)
Age (year)	.03(.754)	-.02 (.814)
Education (year)	-.06(.516)	-.15(.140)
immigration period (year)	-	.13(.238)
Fluency of Korean	-	-.29(.007)
Depression	.20(.031)	.03(.714)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18(.048)	.57(<.001)
Social support	.18(.057)	.53(<.001)
Need for mental health service	.23(.015)	.06(.597)

**3.5 대상자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

대상자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N=201)

Group	Variables	B	$\beta$	t	p
Immigrants	Constant	1.50		7.31	<.001
	Fluency of Korean	-.03	.01	-2.12	.037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21	.04	5.25	<.001
	Social support	.26	.05	4.59	<.001
	F=40.44, p<.001, Adjusted R <sup>2</sup> =.594				
Koreans	Constant	2.1		16.65	<.001
	Depression	.01	.15	1.53	.128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06	.18	1.97	.050
	Need for mental health service.	.04	.02	1.74	.083
	F=4.13 p=.008, Adjusted R <sup>2</sup> =.105				

먼저, 이민여성군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한국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다음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0.44,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은 한국어 유창성( $\beta$ =.01, p=.037),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beta$ =.04, p<.001), 사회적 지지 ( $\beta$ =.05, p<.001)이었으며, 이들 변수는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대해 총 59.4%를 설명하였다. 둘째, 한국여성군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투입한 다음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13, p=.008).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 $\beta$ =.18, p=.050)이었고, 이 변수는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대해 총 10.5%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은 두 군 모두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이민여성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정도는 이민여성에서 한국여성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PHQ-9의 절단점(9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울군은 이민여성에서 42.9%로 한국여성에서 1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을 한국여성 보다 높게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23]와 유사하였다. 기혼 이민여성의 경우 문화적응의 어려움 속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울에 더 취약한 결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24]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이 6.7%인 점과 비교해서 두 군의 우울은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기혼 여성의 우울은 개인뿐 만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 전체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6]. 따라서 추후 기혼 여성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우울군으로 선별된 대상자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추후 진단검사와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이민여성인 한국여성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특성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경험률이 이민여성에서 5.5%로 한국여성에서 2.7%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이민여성은 한국여성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이민경력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언어,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편

감이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남녀 한국인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약 5.7% [25], 베트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약 5.0%로 낮게 보고한 선행연구결과 [11]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울군이 이민여성에서 42.9%와 한국여성에서 15.5%였던 점을 고려할 때, 두 군 모두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태도나 인식으로 측정할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도로 측정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실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경험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하지만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의도를 측정할 것으로 실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과 아울러 실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선별하여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율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은 두 집단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민여성에서 한국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나 인종에 따라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인[26]과 베트남인을 대상[12]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두 군 모두 부정적 신념을 높게 보고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12] 베트남인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부족, 전통적인 견해와 현대적인 견해의 혼합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두 집단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민여성에서 한국여성 보다 유의하게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한국여성과 이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여성과 이민여성 간에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한국여성에 비해 이민여성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가 지지 정도를 높게 보고한 연구결과[2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기혼 여성으로 가족지지가 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의 발전이 더 잘되어 있고 또한, 본 연구에서 이민여성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모집하였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

및 타지원기관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받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두 집단 모두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과 같은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를 보통수준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결과[28]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정신건강전문가를 찾기 보다는 일반 의료계공자를 찾는 것으로 나타나[10]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동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실에 찾아가는 것은 서구적 문화이며 아시아인들의 집단주의 문화와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결과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보다는 집단 구성원 간의 조화를 중시하고,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화를 위하여 개인의 절제된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28]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어도 요구를 충족할 만한 해결방법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결과, 이민여성에서는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언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 부정적이며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동에 대해 59.4%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정신증상의 경험,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 및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 Saint Arnault [30]의 문화적 결정이론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이민여성의 우울은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이민여성은 우울이 중등도 수준이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높은 군이었기 때문에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결과로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인을 대상 [12]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신념을 높게 보고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

로 유사하였다. 이민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은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국여성에 비해 더 강한 양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기혼 이민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개인과 가족의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이나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12] 베트남인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부족, 전통적인 견해와 현대적인 견해의 혼합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추후 기혼 이민여성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교육과 한국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해소하기 위한 개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사회적 지지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언어 유창성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언어의 장벽 또는 인간관계의 협소함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많은 이민여성에게 다른 사람의 격려와 사회적 지지가 이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새로운 문화권으로 이동한 이민여성은 이행과정 중에 다양한 변화로 인해 심리 및 사회적 문제와 함께 정신건강 상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므로 이민여성이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전반적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겠다. 따라서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모국인과 한국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우울정도가 높고,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 부정적이며,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대해 10.5%를 설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 이민여성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 Saint Arnault [30]의 문화적 결정이론과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이다. 한편,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결과, 여성에서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42.5%로 나타났으나 도움 및 상담의 대상이 친구나 지인(51.2%), 가족 또는 친지(21.8%)로 대부분 비공식적인 부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렇듯 한국여성의 비공식적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한국여성은 우울 평균이 정상범위였고 기혼자로서 가족지지 등 사회적 지지가 중간수준 이상으로 높아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면서 공식적인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추후 한국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와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및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모형검증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임을 토대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을 조기에 선별하여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교정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하고 공식적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재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파악하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분석을 하는데 제한점이 있었으며, 연령, 직장인, 육아 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사료되나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일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기혼자인 한국여성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기혼여성이나 이민여성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혼자인 한국여성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의도를 측정된 것으로 실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실제 우울증을 진단받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이행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와 한국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혼 이민여성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두 군 간에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이민여성에서는 언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로 나타난 반면에 한국여성에서는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결과,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은 이민여성에서는 한국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였고, 한국여성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임을 확인하였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 두 군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의 공통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기혼 여성의 공식적인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의 개발과 제공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H-S. Chung, Y-S. Kim, T. Yi, K.H. Ma, Y. Choi, G. Park, C. Tong, J-M. Hwang, E. Lee,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Ministry Gender Equality and Family, [http://www.mogef.go.kr/mp/mpcd/mp\\_pcd\\_s001d.do?sessionId=YLSEhMnQ1BRSKGzhxx48Eins.mogef10?mid=plc503&bbtSn=63](http://www.mogef.go.kr/mp/mpcd/mp_pcd_s001d.do?sessionId=YLSEhMnQ1BRSKGzhxx48Eins.mogef10?mid=plc503&bbtSn=63).
- [2] O. K. Yang, Y. S.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26, no. 8, pp. 79-110, 2007.
- [3] E. K. Yoo, H. J. Kim, M. H. Kim,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2, no. 2, pp. 171-180, 2012.  
DOI: <https://doi.org/10.4040/jkan.2012.42.2.171>
- [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2004 update. [http://www.who.int/healthinfo/global\\_burden\\_disease/GBD\\_report\\_2004\\_update\\_full.pdf](http://www.who.int/healthinfo/global_burden_disease/GBD_report_2004_update_full.pdf) Accessed 16.6.2012.
- [5] A. Bener, S. Ghuloum, "Gender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towards mental health illness in a rapidly developing Arab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ety Psychiatry*, vol. 57, no. 5, pp. 480-486, 2011.  
DOI: <https://doi.org/10.1177/0020764010374415>
- [6] C. D. Gjesfjeld, C. G. Greeno, K. H. Kim, "Econo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maternal depression: is social support deterioration occurring?", *Social Work Research*, vol. 34, no. 3, pp. 135-143, 2010.  
DOI: <https://doi.org/10.1093/swr/34.3.135>
- [7] E. Y. Choi, E. H. Lee, J. S. Choi, S. H. Choi,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stpartum depression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7, no. 1, pp. 39-51, 2011.  
DOI: <https://doi.org/10.4069/kjwhn.2011.17.1.39>
- [8] Y. S. Kim,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pp. 575-583, 201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11.575>
- [9] E. H. Fischer, J. L. Turner,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35, pp. 79-90, 1970.
- [10] S. H. Lee, "Factors affecting help-seeking behavior of Korean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Mental health & Social works*, vol. 27, no. 12, pp. 122-151, 2007.
- [11] K. B. Giang, "Assessing health problems: self reported illness, mental distress and alcohol problems in a rural district in Vietnam", *Dissertations from Karolinska Institutet* 2006.
- [12] L. van der Ham, P. Wright, T. V. Van, V. D. K. Doan, J. E. W. Broerse, "Perceptions of mental health and help-seeking behavior in an urban community in Vietnam: an explorative study",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vol. 47, no. 5, pp. 574 - 582, 2011.  
DOI: <https://doi.org/10.1007/s10597-011-9393-x>
- [13] A. Gulliver, K. M. Griffiths, H. Christensen, "Perceived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mental health help-seeking in young people: a 2010; systematic review", *BMC Psychiatry*, vol. 10, pp. 113, 2010.  
DOI: <https://doi.org/10.1186/1471-244X-10-113>
- [14] A. F. Garland, A. S. Lau, M. Yeh, K. M. McCabe, R. L. Hough, J. A. Landsverk.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utiliz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high-risk youth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62, pp. 1336-1343, 2005.  
DOI: <https://doi.org/10.1176/appi.ajp.162.7.1336>
- [15] G. Schomerus, K. Appel, P. J. Meffert, M. Luppá, R. M. Andersen, H. J. Grabe, S. E. Baumeister, "Personality-related factors as predictors of help-seeking for depression: a population-based study applying 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Social Psychiatry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48, no. 11, pp. 1809-17, 2013.  
DOI: <https://doi.org/10.1007/s00127-012-0643-1>
- [16] J-Y. Cheon, Y. Choi, "The study on the factors in explaining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community resident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49, no. 6, pp. 307-335, 2014.  
DOI: <https://doi.org/10.15300/jcw.2014.49.2.307>
- [17] S. Guo, H. Nguyen, B. Weiss, V. Ngo, A. S. Lau, "Linkages between mental health need and help-seeking

- behavior among adolescents: moderating role of ethnicity and cultural value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62, no. 4, pp. 682-693, 2015.  
DOI: <https://doi.org/10.1037/cou0000094>
- [18] J. R. Jeong, K. J. Yon, J. W. Yang, J. K. Kim, "The effects of gender, psychological distresses, and attitudes and experiences related to counseling on the intent to seek counseling: beyond previous use of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4, no. 1, pp. 131-150.
- [19] R. L. Spitzer, K. Kroenke, J. B. Williams,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Primary Care Evaluation of Mental Disorders.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JAMA*, vol. 282, no. 18, pp. 1737-44, 1999.  
DOI: <https://doi.org/10.1001/jama.282.18.1737>
- [20] M. Hirai, G. Clum,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beliefs toward mental illness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vol. 22, no. 3, pp. 221-236, 2000.  
DOI: <https://doi.org/10.1023/A:1007548432472>
- [21] T. M. Suurmeijer, D. M. Doeglas, S. Briancon, W. P. Krijnen, B. Krol, R. Sanderman, T. Moum, A. Bjelle, W. J. Van Den Heuvel, "The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in the "European research on incapacitating diseases and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for Transactions (SSQ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40, no. 9, pp. 1167-1316, 1995.
- [22] E. H. Fischer, A. Farina, "Attitudes towards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 shortened form and consideration for resear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36, no. 4, pp. 368-373, 1995.
- [23] H. S. Kim,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Daegu and Kyungpook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20, no. 2, pp. 188-198, 2011.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1.20.2.188>
- [2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trieved May 02, 2012, from [http://www.mw.go.kr/front\\_new/sch/index.jsp#preView.htm#National\(2012, May 02\)](http://www.mw.go.kr/front_new/sch/index.jsp#preView.htm#National(2012, May 02)).
- [25] S. H. Lee, "A study on policy for supporting mental health of women in Seoul",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4.
- [26] H. Jang, J. T. Lim, J. Oh, S. Y. Lee, Y. I. Kim, J. S. Lee, "Factors affecting public prejudice and social distance on mental illness: analysis of contextual effect by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 45, no. 2, pp. 90-97, 2012.  
DOI: <https://doi.org/10.3961/jpmph.201245.2.90>
- [27] S. H. Park, W. T. Cho, "A comparison of social network between immigrated women and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2, pp. 41-57, 2013.
- [28] H. S. Kim, Y. S. Choi,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for the needs of family counseling for married immigrant women ",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vol. 17, no. 3, pp. 435-456.
- [29] M. Shea, C. Yeh, "Asian American students' cultural values, stigma, and relational self-construal: correlates of attitudes toward professional help seek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vol. 30, no. 2, pp. 157-172, 2008.  
DOI: <http://dx.doi.org/10.17744/mehc.30.2g662g5l2r1352198>.
- [30] D. M. Saint Arnault, "Cultural determinants of help seeking", *Research and Theory for Nursing Practice*, vol. 23, pp. 259-278, 2009.  
DOI: <https://doi.org/10.1891/1541-6577.23.4.259>

**강 문 희(Moonhee Gang)**

[정회원]



- 1997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정신건강

**이 지 혜(Jihye Lee)**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강의전담교수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관심분야>  
정신간호, 의사소통